



Art

아트인컬처
April 2014

Special Feature /
한국 컨템포러리 '먹-회화'의
새 지평을 열다
중국 잉크 아트의 최전선

Market /
아트페어도쿄, 아트두바이

Artist /
곽남신, 정연두

Report /
아랍 문화의 오아시스,
샤르자를 가다



헬멧 쓴 중년 아저씨들의 '점핑'을 본 적 있는가? 연령, 직업을 불문하고 한 마음으로 걸그룹 크레용팝을 응원하는 이들을 '팝저씨'라 부른다. 크레용팝의 무대 의상에 맞춰 색색의 트레이닝복 차림을 한 팝저씨들 등 뒤에 '크레용팝'을 궁서체로 새기고, 가슴에는 배지를 주렁주렁 단 채, 목이 터져라 "팝!팝! 크레용팝!"을 외친다. 정연두의 신작 <크레용팝 스페셜>의 영상 퍼포먼스 중 한 장면이다. 정연두의 6년만의 개인전 <무겁거나, 혹은 가볍거나>(3. 13~6. 8)가 플라토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2점의 신작이 출품돼 서로 대조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크레용팝 스페셜>이 'B급' 가수를 향해 왈가왈부한 응원을 펼치는 아저씨 팬을 내세운 반면, <베르길리우스의 통로>는 고요한 전시장에 얽전히 놓인 안경 모양의 3D 영상기기를 통해 로맹의 역작 <지옥의 문> 속 고통스러운 인간 군상을 재현한다. 삶과 죽음이라는 원초적 문제 앞에 선 인간들을 '정연두 버전'으로 재해석했다. 첨단 기기를 사용한 작업이지만 내용물은 '수공' 디테일이 살아있다. 정연두는 사진 영상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사람들의 현실과 꿈을 연결하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 준다는 점에서 '드림 위버'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곤 하지만, 사실 그의 작품은 사회 속 개인의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를 비춘다. 작품 속 무대에 오른 주인공의 이야기는 반짝반짝하게 '가공'되었지만 이면에는 씩씩한 현실이 도사린다.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전에 역대 최연소로 선정되고, 2008년 한국 작가로는 백남준에 이어 두 번째로 뉴욕현대미술관(MoMA) 컬렉션에 포함되는 등 어느덧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 잡은 정연두. 그럼에도 그의 작품은 여전히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초기 작업의 결과물에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면, 최근 작업은 제작의 프로세스를 작품의 주요 요소로 부각시켰다. 그의 작품에는 일반인이 종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들과의 '관계 맺기'야말로 작품 제작의 핵심이다. 최근작에서 일반인들은 모델이라는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시작에서부터 완성까지 창작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평소 "창작은 결과를 향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하는 정연두가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이란, 사람들과 함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같이 찾아가는 흥미로운 소통 그 자체다. 첫 개인전 이래 "가장 신나고도 무거운 작업"이었다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과정'의 가치를 되짚어 본다. / 채연 기자



'팝저씨'의 영상 퍼포먼스 현장. 전시 개막 두 달 전인 지난 1월 4일 플라토에 팝저씨들이 모였다. 평균 연령 34세, 단체로 맞춘 응원 의상에 '너만 초아' '오빠당' 등 멤버를 응원하는 닉네임을 수놓았다. 로비 중앙에 설치된 6채널 마이크를 빙 둘러싸고 크레용팝의 히트곡 <바바바>에 맞춰 뛰고 구르며 응원 구호를 목청껏 외쳤다. 가수의 무명 시절부터 스타가 되기까지 길거리 공연, 방송 무대를 가리지 않고 따라다니며 온갖 정성을 쏟는 그들의 열정에 감동했다는 작가는 "즐거은 협업이었다. 작업의 시작에서부터 완성까지 오랜 시간을 소통하며 팝저씨의 열성팬이 됐다"고 밝혔다.

<크레용팝 스페셜>(2014)은 'B급' 가수에 열광하며 대리만족을 찾는 팝저씨를 조명한다. 작가는 그들이 응원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전시장에 크레용팝 전용무대를 준비했다. 무대 정중앙에는 그룹을 상징하는 용무늬 네온사인인 핑크빛으로 반짝이고, 어른남자 어깨 높이의 무대 사방에는 가수의 플리츠 미니스커트 의상을 담은 장식이 팔랑댄다. 충천연색의 조명이 끊임없이 돌아가며 사방을 비춘다. 그러나 주인 없는 텅 빈 무대다. 주인공 팝저씨는 무대 아래 왼쪽 벽 스크린 안에서 춤추고 있다. 그들이 외치는 우렁찬 "사랑해요 바바바"가 무대를 가득 채운다. 열렬한 함성은 서울 도심 시위대의 광기를 떠올린다. 화려한 응원 동작은 군인의 일사분란한 움직임과 통한다. 중년 남성의 독특한 '취미'로만 보이던 걸그룹의 응원은 민주화시위와 군대 문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의 집단적 '증상'을 떠올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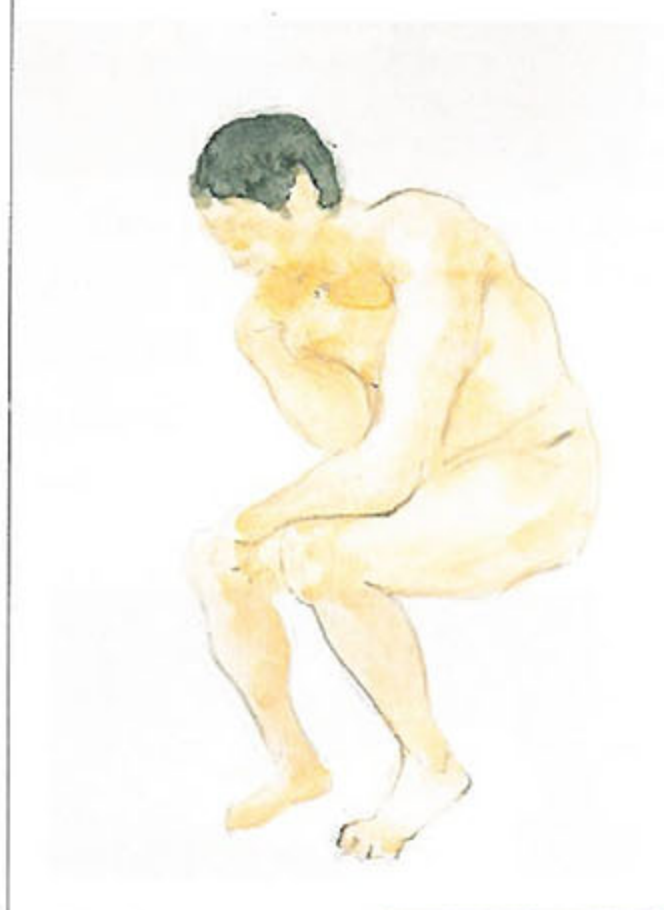


오른쪽은 <크레용팝 스페셜>(부분). 무대 오른쪽 벽에 팝저씨의 응원복 수십 벌을 돌돌 말아 벽면에 설치했다. 무대 조명과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는 듯하면서도, 일렬중대의 배열이 획일적 군대 문화를 연상시킨다. 왼쪽은 <보라매댄스홀>(2001) 과정 사진. 대방동 댄스 교습소에서 춤추는 중년 남녀를 촬영, 커플의 실루엣만 오려내 무대처럼 꾸민 전시실에 패턴 벽지 형태로 설치했다. 고급문화를 누리는 남녀의 유희는 낭만적인 동시에 '외도'라는 키워드를 떠올린다. 당시 한국사회에서 사교댄스는 중산층의 탈선, 불륜의 온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의 초기작부터 현재까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한 작품 속 이원적 의미의 공존이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2003년에 열린 <내사랑 지니>전 방명록 이야기를 꺼냈다. "꿈을 실현시켜 줘서 감사하다"는 소감 바로 아래 "꿈을 이루는 건 사진 속에서나 가능하다는 냉혹한 진실을 확인했다"는 정반대의 반응이 적혀 있었다고. "같은 작품을 두고 호의와 냉소가 교차하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작가는 현실 속의 또 다른 현실이라는 이원적 무대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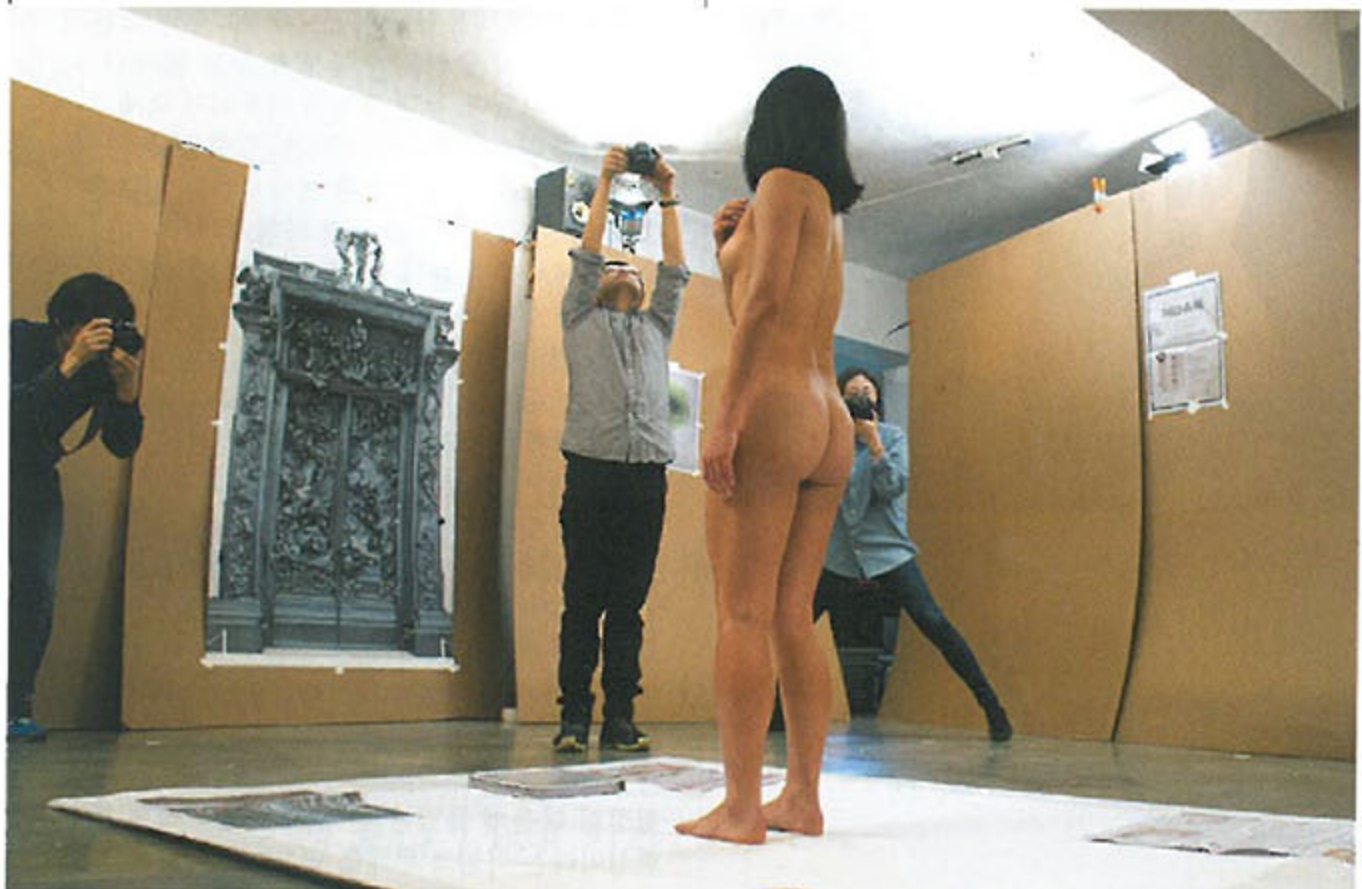


왼쪽부터 <베르길리우스의 통로>(2014), 일본 맹인 안마사 시라토리 씨가 찍은 정연두의 사진. 정연두가 선물한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 맹인이지만 전시회에 가고 사진을 찍는 시라토리 씨와 함께 전시를 보러 간 정연두는 작품에 내리쬐는 빛과 그림자의 굴곡 같은 부분까지 설명했다. 설명을 듣는 시라토리 씨는 누구보다 전시를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작가 자신도 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을 다시 주목하게 됐다고 한다. 여기서 "사물을 보면서도 실제로는 볼 수 없고, 사물을 보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구조"인 <베르길리우스의 통로>를 구상해 냈다. 관객은 안경 모양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오클러스 리프트'를 통해 로댕의 <지옥의 문>과 작품이 설치된 전시장을 새롭게 재현한 가상현실을 보게 된다.



<베르길리우스의 통로>는 로댕의 <지옥의 문>을 구성하는 246명의 인체 조각 포즈를 모델들과 재현하고, 그것을 '실감형 입체 영상'으로 디지털화한 작품이다. 지옥의 관문에 선 인간 군상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사진으로 완성하는데 4개월이 걸렸다. 조각 속 중력을 거스르는 신체 포즈를 현실 속 인체로 똑같이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모델의 열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작업이었다. 로댕 화집, 작가가 찍은 조각 클로즈업 사진 등 수많은 자료를 모델과 연구하며 가능한 완벽하게 재현하고자 했다. 전시장에 설치된 누드 드로잉 연작도 이 단계에서 떠올랐다. "예술가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문외한인 사람들도 자기 의견을 주는 과정이 너무나 흥미로웠다"며 작가 활동에서 고립되지 않는 방법으로서 '협업'을 재차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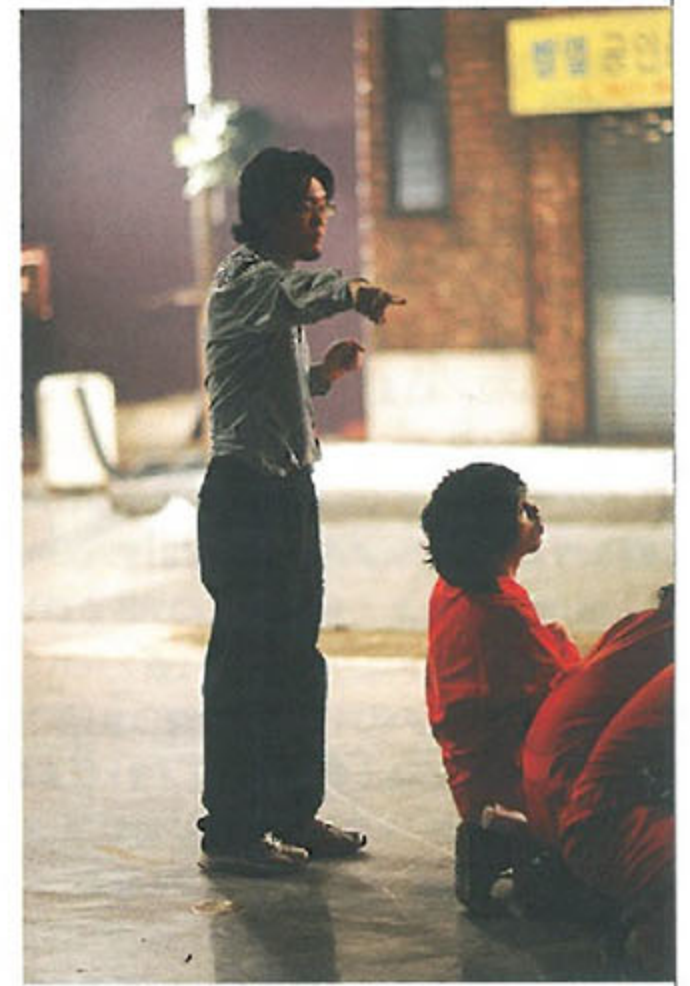
오클러스 리프트는 기기를 쓴 사용자의 얼굴 움직임을 인식해 각각의 위치에 입력해 놓은 3D영상을 출력시킨다. 영상을 보려면 로댕의 조각 앞에 앉아 기기를 쓴 채 이쪽저쪽을 살펴야 한다. 눈을 가린 채 어색하게 두리번거리는 관객의 모습이 선글라스를 낀 맹인의 움직임과 닮았다. <지옥의 문> 원작은 볼 수 없지만 대신 실제 인물 사진으로 대체된 새로운 <지옥의 문> 형상이 눈 앞에 펼쳐진다. 작가가 구사해 온 이원화된 영상문법이 장소 특정적 재현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구현되는 지점이다.





〈상록타워〉(2001) 연작 설치 전경. 같은 이름의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32가구의 집 내부에서 찍은 가족사진 연작이다. 작가는 옆집에 살던 일가족의 야반도주를 목격했던 적이 있다. "나와 똑같은 구조의 집에 살던 이웃에게 일어난 그의 불행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궁금했다"는 그는 같은 아파트에서 서로 다르게 살고 있는 개인을 '가족사진'이라는 소재를 통해 보여 줬다. 실제로 사진을 받기 위해 미술관에 들른 모델 가족들 역시 자신의 것보다 다른 집의 가족사진을 훑어져라 들여다 봤다고. 이번 전시는 김계 칠한 사방의 벽에 각각의 사진을 열을 맞춰 띄엄띄엄 걸어 놓아 마치 한밤중의 아파트 풍경처럼 연출했다.

왼쪽부터 〈다큐멘터리 노스텔지어(이하 DN)〉(2007) 스토리보드, 〈DN〉 촬영장의 정연두. 〈DN〉은 섬 없이 한 번에 찍은 6장의 84분짜리 무성 영상과 작품을 촬영한 세트 설치로 구성됐다.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스태프들은 방금 전까지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였던 검은 매트를 뒤집어 치우는가 하면, 곡식이 누렇게 익어 있는 시골 풍경이 그려진 패널을 미는 등 세트를 움직여서 장면마다 다른 배경을 만들어 낸다. 정연두는 이 작품부터 제작 과정의 뒷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기 시작했다. 한편 〈DN〉은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전 출품작으로, 뉴욕현대미술관이 컬렉션으로 구입했다.



왼쪽은 〈수공기억〉(2008) 연작 중 '육간대칭'. 탑골공원에서 만난 노인의 인터뷰와 그의 과장된 무용담을 재구성한 영상이 2채널로 상영된다. 한쪽 화면에서 노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른 쪽 화면에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스태프 두 명이 등장해 그 말을 충실히 수행한다. 작가는 이 스태프들이 스크린 바깥에서 작품을 연출하는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초기작 〈내 사랑 지니〉(2001), 〈원더랜드〉(2004) 등에서 사람들의 꿈을 시각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DN〉 이후에는 '수공'된 꿈 바깥의 '과정'과 '현실'을 보여 주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또한 최근 작품에 등장한 일반인은 작가가 실현해 준 '꿈'을 누리는 수동적 모습을 넘어서 '현실'의 예술 창작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